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25.9.29(월)-25.10.02(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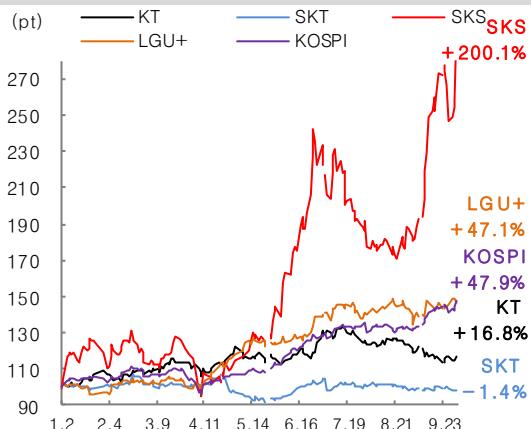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s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 기업 | 24/12/30 | 9/26 | 10/02 | 연간 상승 | 수익률 | 주간 상승 | 수익률 | 12MF DPS | 배당수익률 | 주간 그래프 |
|---------------|--|---------|---------|-----------|----------|----------|---------|----------|-------|--------|
| SKT(017670) | 55,200 | 54,900 | 54,400 | ▼ 800 | ▼ 1.4% | ▼ 500 | ▼ 0.9% | 3,540 | 6.5 | |
| SK스퀘어(402340) | 79,300 | 195,300 | 238,000 | ▲ 158,700 | ▲ 200.1% | ▲ 42,700 | ▲ 21.9% | | | |
| KT(030200) | 43,850 | 51,100 | 51,200 | ▲ 7,350 | ▲ 16.8% | ▲ 100 | ▲ 0.2% | 2,600 | 5.1 | |
| LGU+(032640) | 10,330 | 14,980 | 15,200 | ▲ 4,870 | ▲ 47.1% | ▲ 220 | ▲ 1.5% | 650 | 4.3 | |
| KOSPI | 2,399.5 | 3,386.1 | 3,549.2 | ▲ 1,149.7 | ▲ 47.9% | ▲ 163.2 | ▲ 4.8% | | | |
| 주가 Com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 코멘트: 쉴 때는 확실히 쉬자 ■ 통신 주간 -0.2%, KOSPI +4.8%, YTD 통신 +12.7%, 지수 +47.9%. 지난 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잠시 방어주 역할을 했으나, 이번주 지수의 폭등으로 다시 언더파풀. 과거와 달라진 점은 지수의 폭등 구간에서 통신이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언더파풀일 뿐 하락은 아니라는 것 ■ 해킹 관련 이슈가 주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 지수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통신업이 주목 받기는 쉽지 않을 것. 다만, 3Q 실적 자체는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하락 보다는 현수준 유지 전망 ■ 일회성 비용 요인과 해킹 이슈 등은 3Q 실적 이후에 모두 소멸될 예정이어서 실적 시즌 11월 중순부터는 다시 상승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 ■ 현시점에서는 자사주 취득과 외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LGU+ 위주로 비중 확대 필요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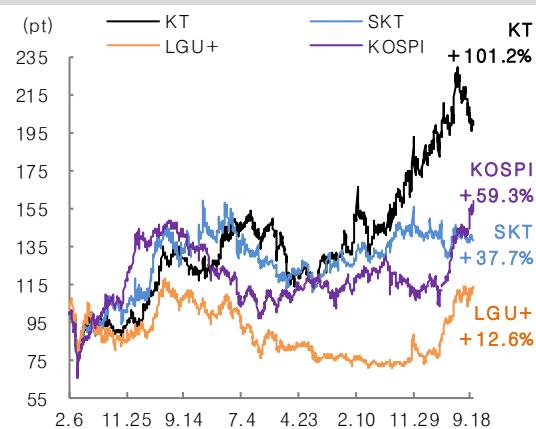
2. 주가 차트

그림 1 25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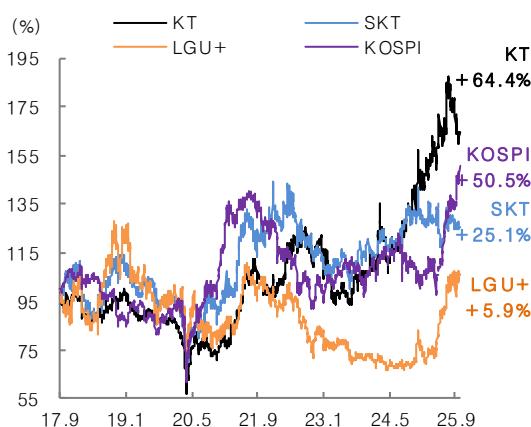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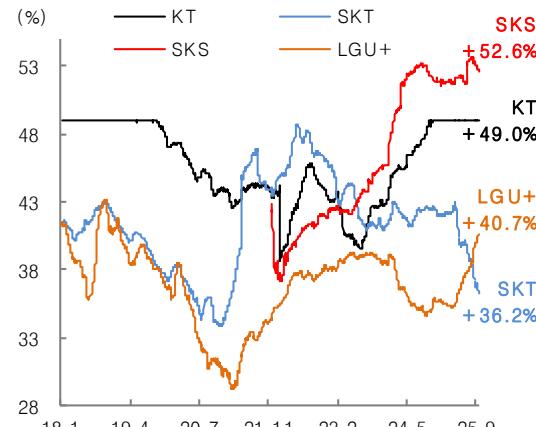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7.9월 선약할인율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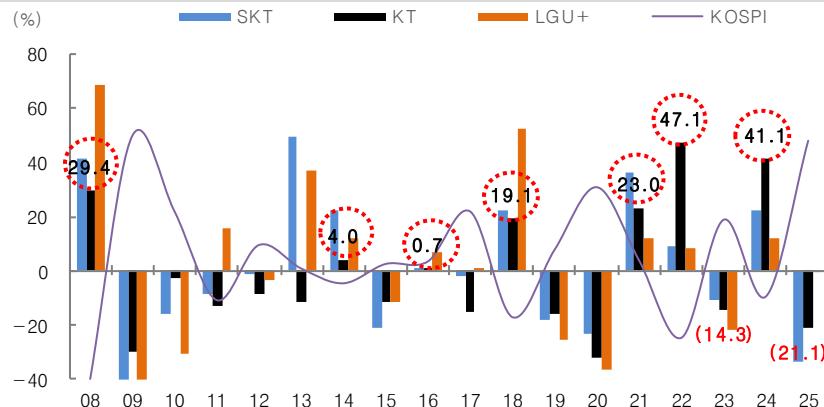
그림 4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그림 5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LGU+ +47.1%(-0.5%), KT +16.8%(-21.1%), SKT -1.4%(-33.4%)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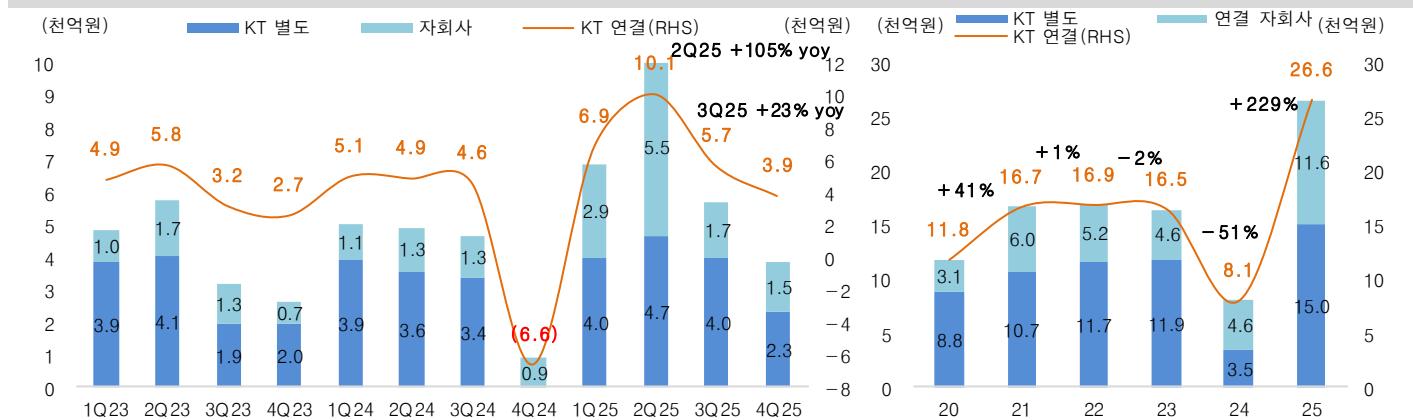
그림 6 2Q 실적 시즌까지는 지수와 유사하거나 강세를 보였으나, 9월 정보보호 이슈로 상대적 약세 구간 진입

| | SKT | KT | LGU+ | KOSPI | 상대수익률 | 상대수익률 | 상대수익률 |
|----|--------|--------|--------|--------|--------|--------|--------|
| 19 | (11.7) | (9.4) | (19.5) | 7.7 | (18.0) | (15.9) | (25.3) |
| 20 | 0.0 | (11.1) | (17.3) | 30.8 | (23.5) | (32.0) | (36.7) |
| 21 | 41.0 | 27.5 | 15.7 | 3.6 | 36.1 | 23.0 | 11.7 |
| 22 | (18.1) | 10.5 | (18.8) | (24.9) | 9.0 | 47.1 | 82 |
| 23 | 5.7 | 1.8 | (7.4) | 18.7 | (11.0) | (14.3) | (22.0) |
| 24 | 102 | 27.5 | 1.0 | (9.6) | 21.9 | 41.1 | 11.7 |
| 25 | (1.4) | 16.8 | 47.1 | 47.9 | (33.4) | (21.1) | (0.5) |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3Q25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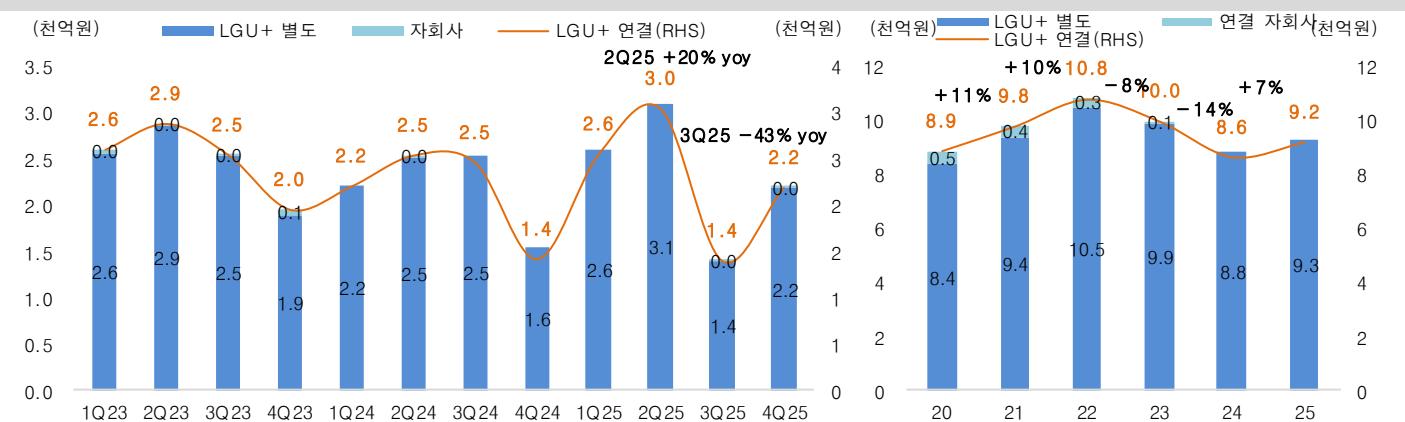
그림 7 KT OP 3Q25 5.7천억원(+23% yoy), 25E 2.7조원(+229% yoy) 전망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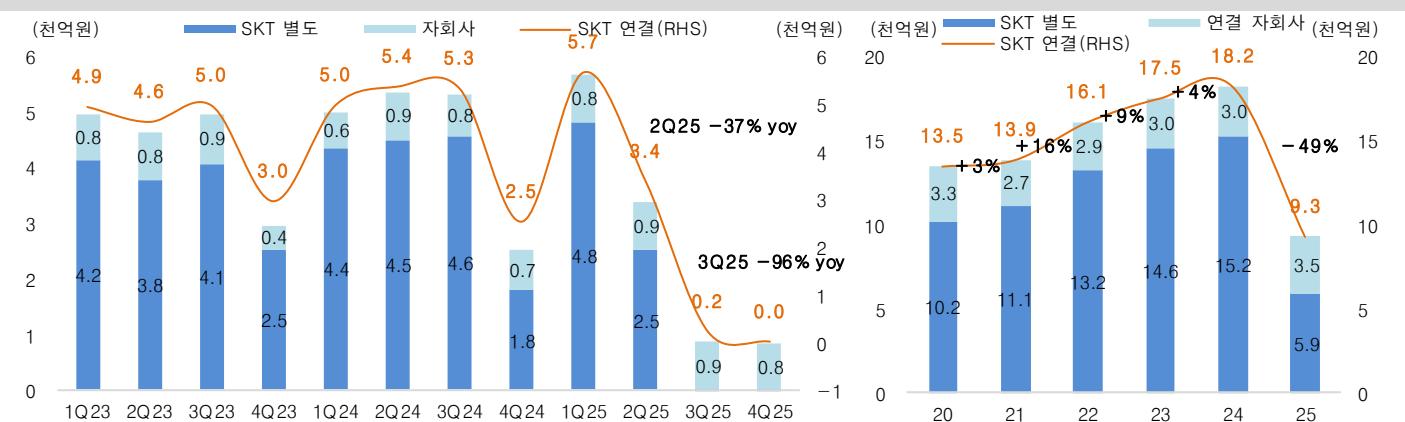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그림 8 LGU+ OP 3Q25 1.4천억원(-43% yoy), 25E 9.2천억원(+7%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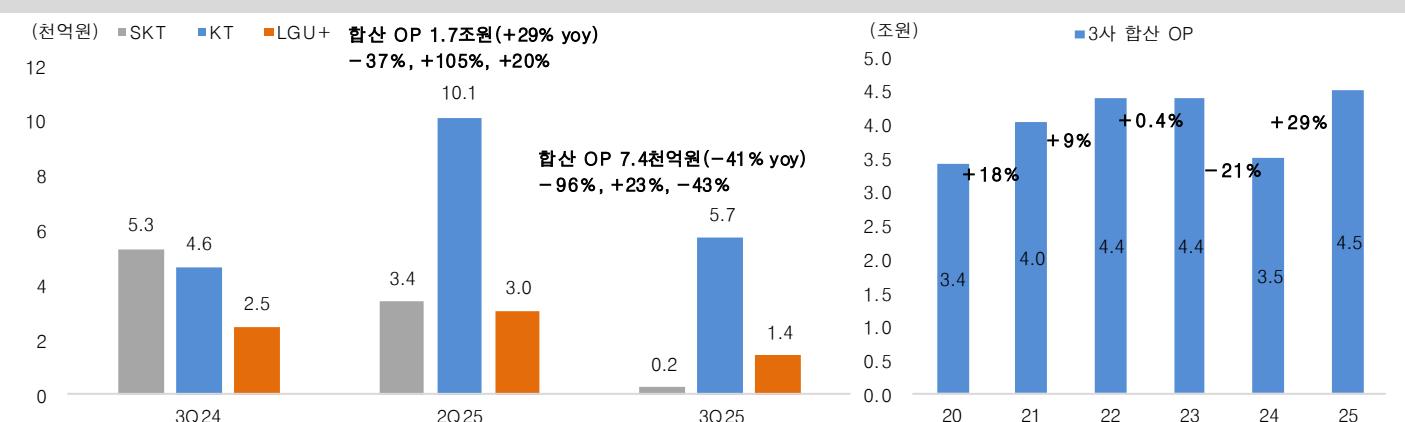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SKT OP 3Q25 236억원(-96% yoy), 25E 9.3천억원(-49% yoy) 전망



자료: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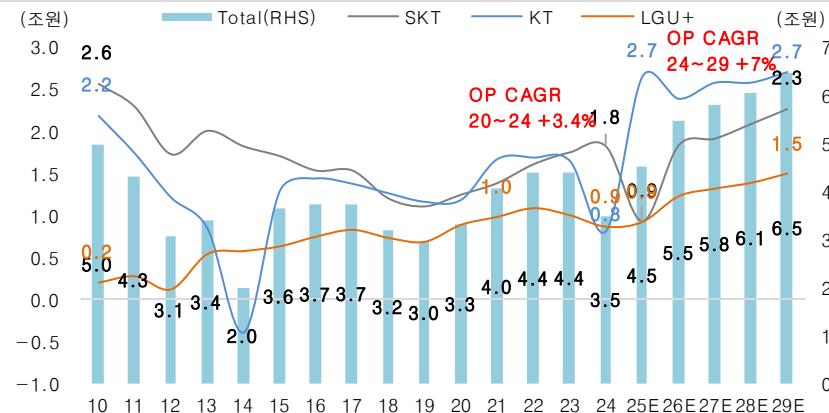
그림 10 3사 합산 OP 3Q25 7.4천억원(-41% yoy), 25E 4.5조원(+29% yoy) 전망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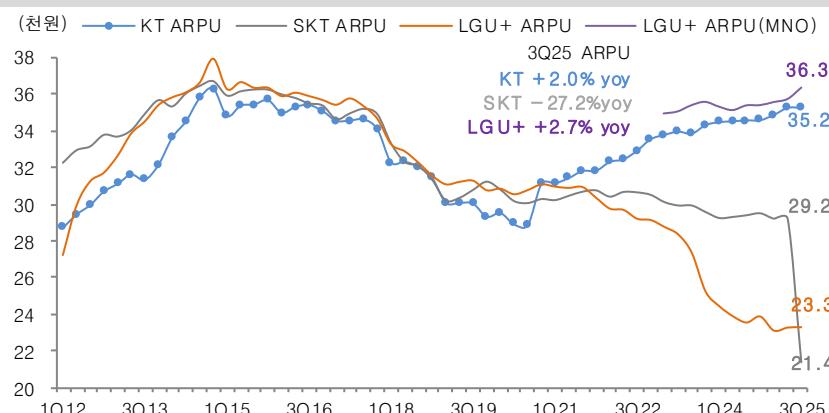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그림 11 3사 합산 OP 25E 4.5조원, 29E 6.5조원. 연평균 7% 증가 전망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무선 ARPU. KT +2.0%, LGU+ +2.7%, SKT -27.2%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KT-MS 합작 AI모델, IoT 3,000만 시대, 9월 번호이동, SKT '에어' 런칭, KT 마이데이터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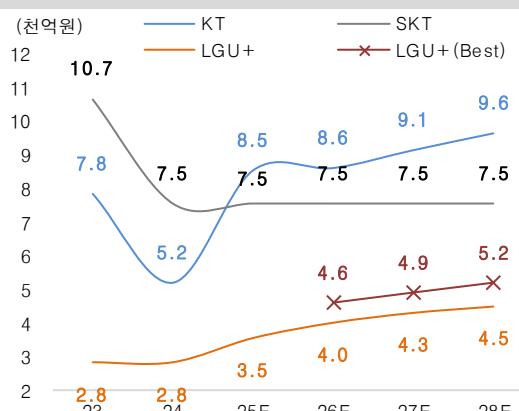
| | | |
|---------------|--|-----|
| KT-MS 합작 AI모델 | 1. KT,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GPT-4o 기반 한국 특화 AI 모델 SOTA K 출시.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맥락 반영 2. 데이터 보호, 한국 문화 이해, 모델 선택권 보장, 책임 있는 AI 원칙 적용. 경어법·방언·전문 용어 자연 처리 탁월 3. 공무원·귀화 시험 등 한국 지식 평가에서 GPT-4o보다 우수, 자체 평가 지표에서도 높은 성능과 안정성 확보 4. 매리츠화재, EBS, 연세의료원,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에서 활용. 약관 요약, 맞춤형 학습 등 신속·명확한 질의응답 가능 5. 국내 클라우드 리전에서 운영. 한국형 RAG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독자 개발 모델 '민:음과 투트랙' 운용, 한국 AI 생태계 확산의 전환점 역할 기대 | KT |
| | ■ KT는 생성형 AI 시장 확산에 Sovereign AI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MS와 협업 체결 후 25년 하반기부터 BM이 도출되는 중 ■ KT의 금융, 공공 분야의 고객과 MS의 솔루션 및 KT의 기존 AI 모델이 결합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긍정적 |
| IoT 3,000만 시대 | 1. 국내 IoT 회선 3,000만 돌파. 2023년 2,000만 달성을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 고성장세 지속 전망 2. 성장의 핵심 요인은 차량관제 수요 확대. 5월 차량관제용 회선이 1,000만을 돌파하며 전체 시장 성장 견인 3. 차량관제 IoT는 텔레마티ックス·커넥티드카 서비스 기반으로 확대. 이통 3사는 e심 요금제·공급 계약 등 회선 확보에 적극 대응 4. LGU+가 873만으로 시장 1위, SKT 739만, KT 507만 보유. KT는 현대차·한전 수주를 기반으로 추격 중 5. 글로벌 IoT 시장은 올해 1조달러 규모 돌파 후 2029년 1.5조달러 전망. 국내는 2032년까지 연평균 31.3% 성장 예상. 향후 AI 결합한 AIoT와 스마트홈·소비자용 IoT 성장세 가속 예상 | 산업 |
| | ■ 19.4월에 상용화된 5G는 B2C 스마트폰형 서비스에서는 고화질 영상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는 기반 마련 ■ 하지만, 5G의 궁극적인 BM은 진정한 IoT 시대를 구축하는 것. 5G의 요건 자체가 20G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용량과 1ms 이내의 응답속도를 통해 동일한 면적에서 LTE 대비 10배 더 많은 연결을 제공하는 것 ■ 따라서, IoT 회선 증가에 따라 5G의 성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전망 | 긍정적 |
| 9월 번호이동 | 1. 9월 번호이동 건수는 64만 3,875건(MoM -743건)으로 집계. KT 해킹 사태와 아이폰17 출시에도 시장은 잠잠히 흐름 유지 2.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도 순감 2,992명 기록. 알뜰폰 이탈을 제외하면 71명 수준으로 사실상 보합 상태 유지 3. 아이폰17 출시 효과도 제한적. 공통지원금 45만원·추가지원금 15%로 보조금 경쟁이 억제돼가입자 쓸림 현상 크지 않음 4. 통신 3사는 해킹 사태 속 보안 강화와 마케팅 여력 한계로 보조금 경쟁을 자제. 연간 실적 목표 달성과 획득비 소진도 영향 | 산업 |
| | | |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 | | |
|-------------|--|------------|
| | <p>5. 변수는 KT 위약금 면제 방안, 피해 고객 2만명 대상 검토 중으로 규모 확대 시 이탈 증가와 보조금 경쟁 재점화 가능성 존재, 알뜰폰은 1만4,685명 순감하며 성장 한계 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보급률이 80%에 육박하고, 통신3사가 각각 유무선 결합을 통해 고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호이동의 큰 증가 가능성은 낮음 ■ 단통법 폐지 이후 출시된 갤럭시 폴더블폰과 아이폰17의 경우는 주력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번호이동의 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다만, 연말까지 지속되는 SKT의 고객감사 패키지의 종료 이후 26년초 갤럭시S260이 출시되는 시점에 SKT의 점유율 회복 전략에 따라 일시적인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 종립적 |
| SKT '에어' 런칭 | <p>1. SK텔레콤,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 대상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 론칭. 요금제 단순화 및 포인트 혜택 중심 서비스 제공 2. 5G 기준 2만9,000원~5만8,000원, 데이터·음성·문자 기본 제공. 부가 혜택 제거로 월정액 낮춤, 유무선 결합·단말 판매 없음 3. 앱 내에서 적립 가능한 '에어 포인트' 제공, 요금 납부와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능. 앱 활용도에 따라 혜택 차이 발생 4. 셀프 개통, eSIM 우선 개통, 당일 유심 배송, 예약 개통 가능. 앱 기반 고객센터 24시간 운영, 향후 AI 챗봇 상담 도입 예정 5. 기존 T다이렉트샵 및 알뜰폰과 차별화. 2030 자급제 고객 공략 및 고객 리텐션 강화 목표. 앱을 통한 신속한 셀프 해결 방식 도입</p> <p>■ 거품을 뺀 저렴한 요금제의 출시는 ARPU 하락 요인. 반면, 자급제를 통한 셀프 개통 활성화는 마케팅비용 감소 요인</p> | SKT 종립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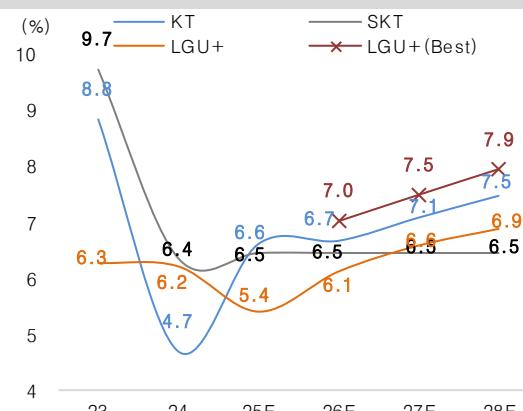
5. 주요 지표

그림 13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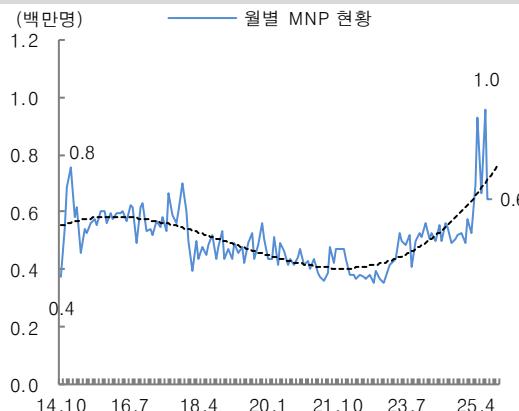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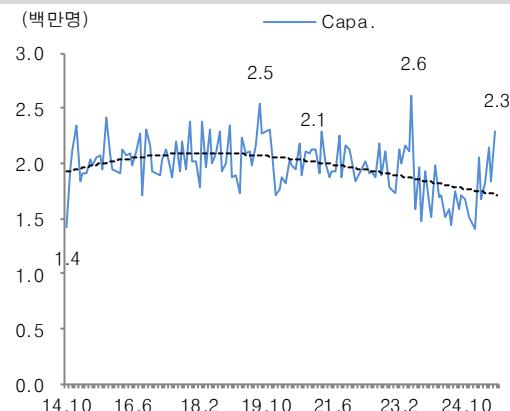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번호이동(25.9월) 645천명, -0.7천명 mom. 24년 평균 521천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 Capa.(신규 + 변이 + 기변) 2.3백만명(25.7월). 24년 평균 상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그림 17 총회선 점유율(25.7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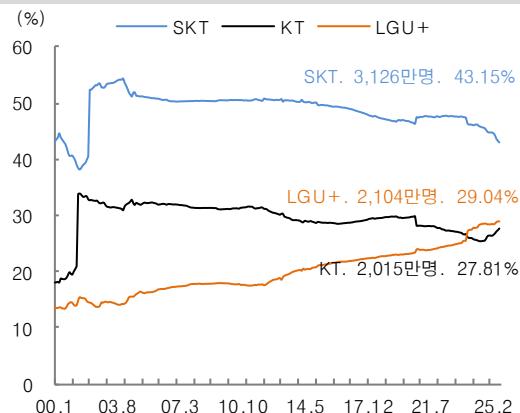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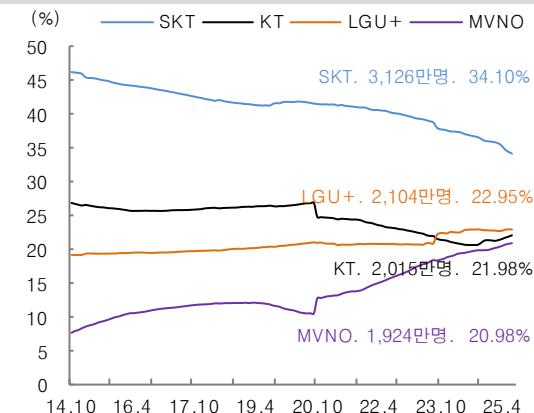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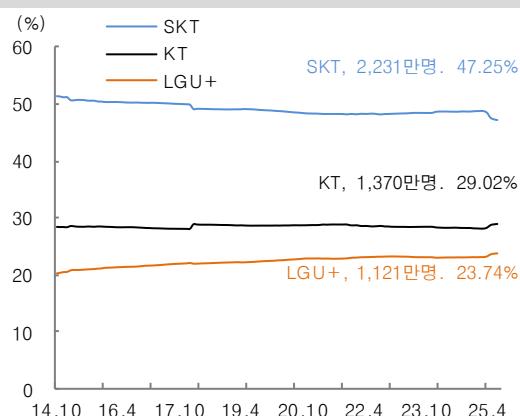


그림 18 총회선 점유율(25.7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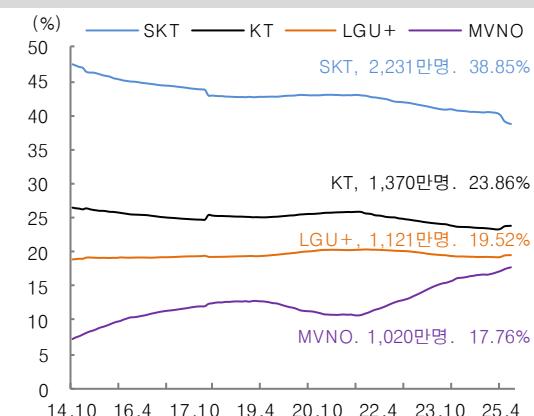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9 휴대폰 점유율(25.7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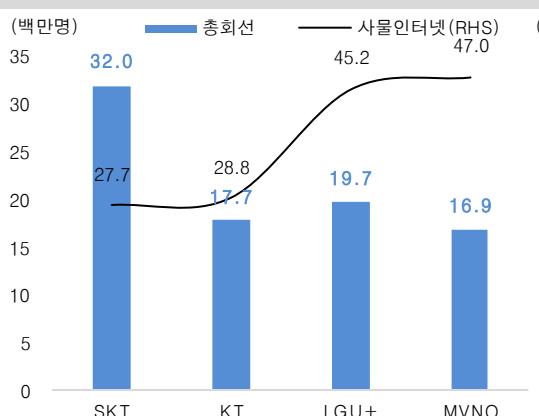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0 휴대폰 점유율(25.7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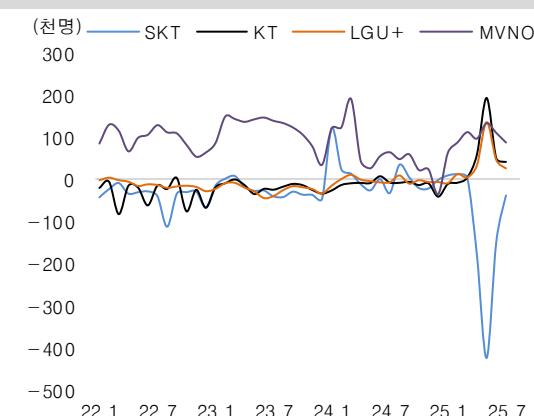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1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7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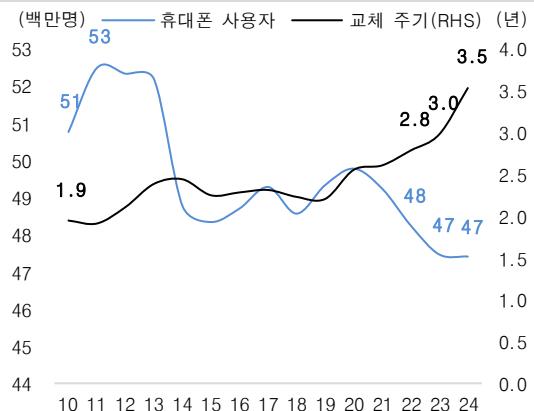
그림 22 휴대폰 순증(25.7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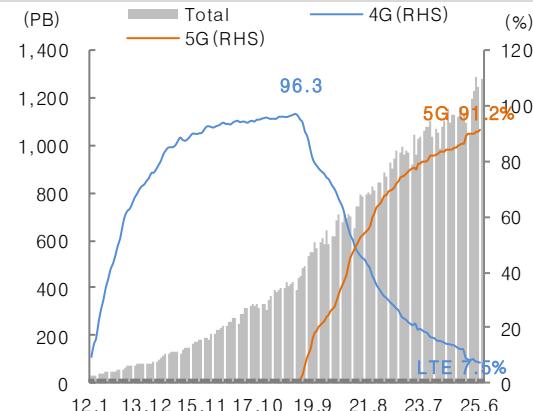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그림 23 휴대폰 교체주기 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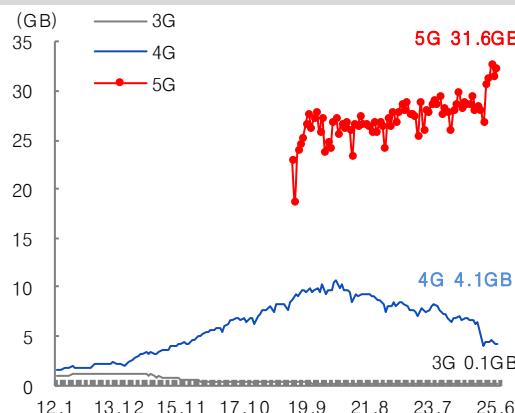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4 5G 트래픽 비중 91.2%(2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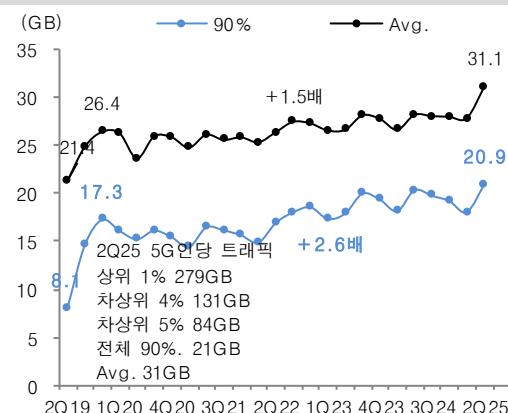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5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1.6GB(25.7월), +0.8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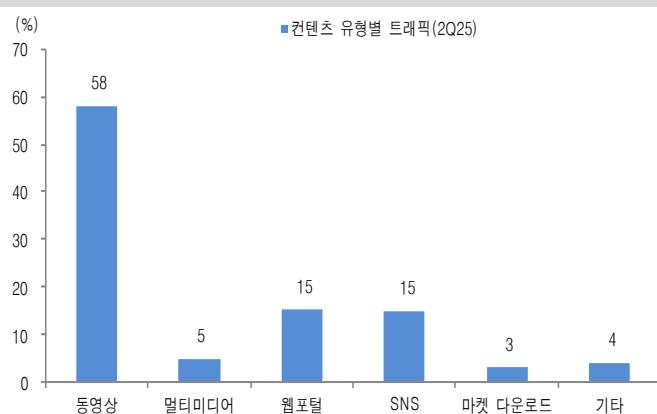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6 5G 트래픽 추이(2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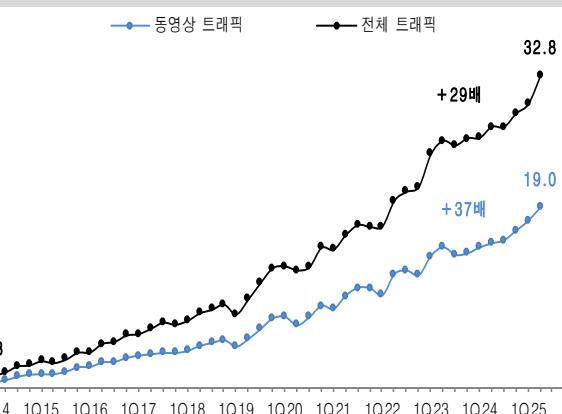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7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2Q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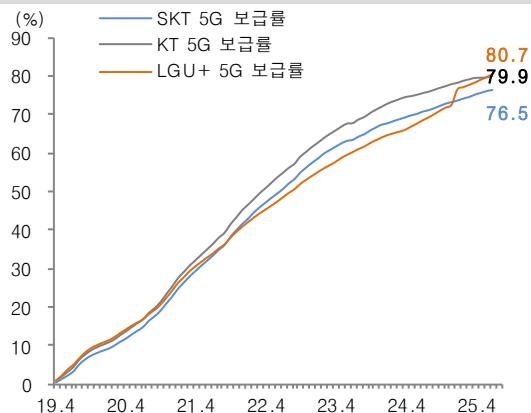
그림 28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2Q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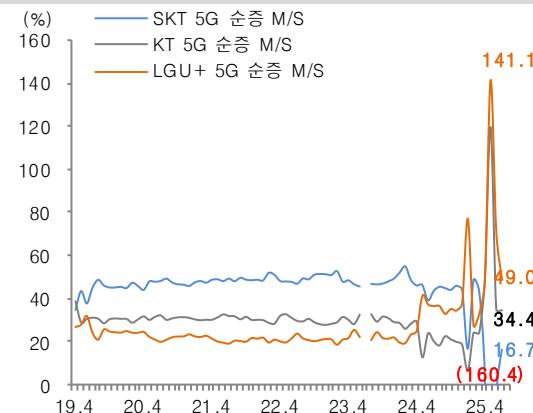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그림 29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78.5%(2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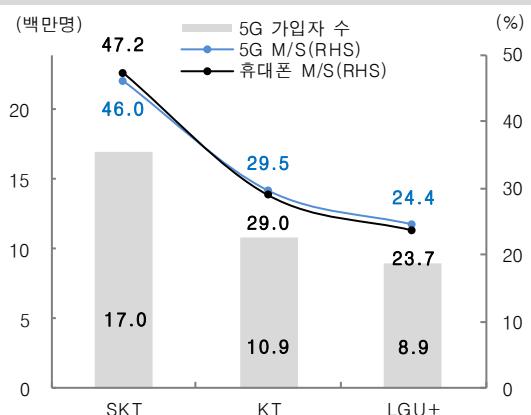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0 5G 순증 점유율(2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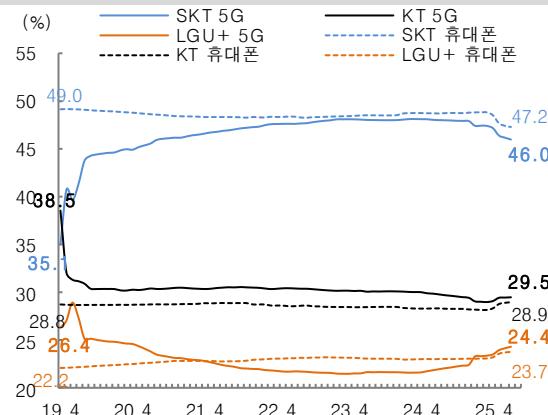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1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7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2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7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